

국민 우려 질환, 암-관절염-고혈압-치매 순

질병정보 'TV·인터넷' 통해 얻는다 가장 많아

국민들이 미래에 발병할까봐 걱정하는 질환은 암, 관절염, 고혈압, 치매, 치과질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손명세)은 '자신에게 발생할까봐 걱정하는 질환(국민 걱정 질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암이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71.4%는 현재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했다. 과거 또는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은 없음(62.8%)이 가장 많았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70.0%였다. 가족이 앓은 질환

은 암(38.2%), 혈압(23.2%), 당뇨병(19.5%), 뇌졸중(19.5%), 치매(11.8%) 순이었다.

미래에 질병이 발생할까봐 우려하는 빈도는 '가끔 한다'가 63.1%로 가장 많았다. 인한다(21.9%), 매일 또는 자주한다(15.0%) 순으로 답했다.

미래 걱정 질환의 주요원인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가족력, 식습관, 음주 순으로 꼽혔다.

질병정보는 주로 TV·인터넷 등 매스컴을 통해 획득하는 경우가 6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의료인(16.5%), 주변사람(7.9%), 정부·공공기관(6.7%), 신문·잡지(4.2%) 순이었다.

미래에 질환 발병을 걱정하는 이유는 의료비 부담(36.7%), 생활불편(25.6%), 삶의 질 저하(21.7%), 간병 부담에 대한 부담감(15.3%) 순이었다.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외에 민간보험, 개인저축 등을 추가로 준비한다는 답변이 81.5%에 달했다.

미래 걱정 질환 대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68.2%), 개인 여유자금 마련(18.2%), 의료시설 지속 확충(4.9%)이라고 답했다.

미래 걱정 질환 예방법으로 건강검진(51.2%), 운동(36.9%), 문화생활 등 스트레스 해소(29.1%) 등을 꼽았다.

주혜진 기자 hjjo@koreanurse.or.kr

가톨릭대 간호대학 '영적 돌봄' 국제학술대회 호스피스연구소 'WHO 협력센터' 재인증 기념

가톨릭대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소장·용진선)와 가톨릭대 간호대학(학장·양 수)은 제11회 국제학술대회를 'Global Perspectives in Spiritual Care(영적 돌봄의 국제적 지평)' 주제로 11월 10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영적 돌봄 분야의 저명한 국내외 연자들이 참석해 영적 돌봄에 대한 사고의 지평을 높이고, 완화의료에서의 영적 돌봄 통합 및 실행 방안 등 국제적 전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화의료의 강화 및 영성의 중요성에 대한 WHO의 접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정책 및 발전 방향' '예술적 치유와 시간' '영적 돌봄과 완화의료의 통합: 전인적 돌봄의 모델'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용진선 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가톨릭대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가 WHO 협력센터로 재인증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연구소는 WHO가



호스피스 영적 돌봄에 대한 세계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적 돌봄은 21세기 보건 의료체계에서 새로운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영적 돌봄에 대해 함께 탐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수 학장은 환영사에서 "연구소는 지난 30여년간 한국 내 호스피스 정착에 기여해왔다"면서 "현장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함께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미래 소망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간협, 감염관리 실무자 교육 실시

병원에서 감염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됐다. 대한간협협회는 '감염관리 실무자 교육'을 11월 9~10일 건국대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발맞춰 마련됐다. 감염관리실 설치대상과 근무인력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10월 6일 개정됐으며, 감염예방·관리요가 9월 1일 신설됐다.

이번 교육에는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감염관리실 근무와 감염관리 프로그램 운영 △병원미생물과 감염성 질환의 이해 △전과경로별 주요 질환 △의료관련감염 감시의 개요 및 진단 △순 위생 △소독과 멸



균 △환경 소독 및 관리 △직원감염관리 △감염감소 중재전략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대한간협관리간호사회 천희경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강의를 맡았다.

천희경 회장은 "병원 내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감염관리 실무자 수가 2~3배 늘어났고, 교육요구도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은 중소병원 감염관리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구성했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 안내	대한간협협회 KNA 에듀센터 edu.koreanurse.or.kr
--------------------	---

2016년 온라인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3차 재공고

대한간협협회는 2016년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팀을 3차 재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 제	수분, 전해질, 산·염기 불균형 간호	수술환자 간호
개 발 비	8시간 기준 3,000만원 (VAT포함)	
※ 주제별 단일 응모팀 접수 시 해당 팀은 유할 처리함		

- 참가방법: 개발자는 여러 주제에 대해 중복 지원이 불가함
 - 개발책임자 신청자격
 - 1) 간호계: 대한간협협회 등록회원에 한함
 - 간호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 의료기관 소속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 (팀장급 이상)
 - 2) 비간호계(의료인): 간호계 1인이 공동개발책임자로 구성되어야 함
 - 의과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 제출서류: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신청서, 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신청마감: 2016. 12. 2(금), 이메일 도착분(서명날인 기재)
 - 제 출 처: hayang@koreanurse.or.kr(02-2260-2523)
- ※ 자세한 사항은 KNA 에듀센터 홈페이지(edu.koreanurse.or.kr) 참고

통일시대 대비 보건의료 지원방안 마련해야

"북한주민 인권 개선과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제입니다."

2016 평화통일 대토론회가 '통일을 위한 종교·복지계의 역할과 국론결집' 주제로 11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해 대한간협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13개 기관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종교와 보건복지계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 방안을 모색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은 '통일을 위한 종교·복지계의 역할과 국론결집' 주제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들이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한반도 통일은 남한과 북한 모두가 하나의 민족공동체 속에 융화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탈북민 정착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 방안' 주제로 보건의료단체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강동완 부산하나센터장은 "탈북민들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분야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결핵감염 비율이 높은 만큼 결핵감염자에 대한 특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토론회가 종교 및 보건 의료단체들이 서로 소통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공단(이사장·이영순)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배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전의식 향상은 물론 산업현장 필수 안전수칙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사항 준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책자는 총 42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장마다 만화와 해설이 포함됐다. 만화로는 법 조문과 관련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표현했으며, 해설을 통해 사업장에서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서술했다.

공단 일선기관을 통해 기술지원 사업장에 책자를 배포했다.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 1645곳을 통해 사업장에 안내할 수 있도록 보급했다. 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kosha.or.kr)에 게시했다. 전국 공공도서관에도 비치했다.

유호진 교육미디어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로 산업재해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을지대 간호대학 '인간돌봄' 국제학술대회

을지대 간호대학(총장·조우현, 간호대학장·임숙빈)은 제4회 을지 국제간호컨퍼런스(EINC2016)를 'Human Caring: Nursing's Covenant with Humanity' 주제로 11월 4일 개최했다.

미국, 독일, 일본, 대만 등의 간호학 교수들을 비롯해 400여명이 참석해 진정한 인간돌봄의 의미 및 간호의 미래와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간호사의 돌봄과 역할' '근거기반간호' '간호윤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간호중재 및 간호교육'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국내외 간호대학, 병원, 연구



소 등에서 제출한 논문 110편이 발표됐다.

임숙빈 학장은 "간호의 미래는 진정한 인간돌봄에 달려 있다"면서 "간호대상자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간호의 본질과 실무를 인식하고 간호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고대 간호학연구소 '만성질환관리' 국제학술대회

고대 간호학연구소(소장·한금선)는 제10회 국제학술대회를 'State of Science & Future Perspectives: Chronic Illness' 주제로 11월 5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등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만성질환 관련 연구 성과 및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국의 만성질환관리 현황 및 사례를 소개했다.

한금선 소장은 "연구소는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만성질환과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누고 미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간호교육 및 연구, 임상실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간호사의 열정으로 한번 더 JUMP!

19년 전통의 간호교육연수원이 간호사들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합니다.

간호직공무원 / 보건진료직공무원 / 보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공무원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 www.ganhohak.co.kr

간호사를 위한 온라인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